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국회의원은 '혐오 집단'인가?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생전 처음으로 '혐오 집단'에 속하게 됐다"라고 말하곤 했다. 농담만은 아니다. '국개의원'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은 아마도 국민 혐오 집단 1순위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대상인 국회의원만 모르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아니 알고도 외면한다. 공천 밥그릇 싸움이 살벌한 것을 보면 빤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회가 혐오 집단인가? 그럴 리는 없다. 국회는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신성하다. 국회가 없다면 권력은 썩어 들어가고 독재로 치달을 것이다. 민의는 전달될 길이 없고 세금은 낭비되고 사회적 약자는 더 밟힐 것이다. 국회에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이 혐오 집단이 됐을까? 자승자박인가? 물론 썩은 국회의원들 때문이기도 하다. 직을 악용해서 개인의 치부에만 골몰하는 사람들, 뇌물도 로비도 마다 않는 사람들, 하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거드름 피우는 꼴이 볼썽사납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나 썩은 사과, 상한 사과들은 있게 마련이다. 아마 너그럽게 봐준다면 10%는 되리라. 하지만 썩은 사과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를 혐오 집단으로 봐야 하나? 이런 현상에는 그렇게 만들려는 세력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원과 정치를 혐오하게 하려는 세력들이다. 누구인가? 정부, 언론, 공공기관, 대기업 들이다. 때로는 대통령도 나선다. 한마디로 현실 권력이다.

깨끗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대의명분을 따르는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통령, 정부, 언론, 공공기관, 대기업, 즉 국회의 입법 기능과 심의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실 세력들은 만만한 국회의원을 좋아한다. 때가 되면 줄을 당길 수 있는 국회의원, 줄 잘 서고 편 잘 들고 말 잘 듣는 국회의원, 정 안 되면 위협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결점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호한다. 깨끗하고 착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은 까칠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은 수없이 많다. 털면 티끌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식이다. 온갖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현실 권력보다도 선출직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할 뿐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된다. 권력이 줄을 당기고 검찰과 선관위가 움직이고 정부 편 언론이 움직이면 사람 하나 잡아넣거나 힘을 빼는 건 일도 아니다. 지역 예산 배정을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 역시 쉬운 장악 기술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적대적 환경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한가는 자명하다. 첫째, 밥벌이로서만 국회의원직을 보는 사람은 곤란하다. 둘째, 자기 지역구에만 목을 거는 국회의원은 곤란하다. 셋째, 권력 획득 수단으로서만 국회의원 직을 보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들은 첫째, 무능하기 십상이고 둘째, 소승적이기 십상이며 셋째는, 자칫 썩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자칫 봉이 되고 호구가 된다. 거수기가 되고 돌격대가 된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제대로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하면서 국회의원 직이라는 허명에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거나 못하겠다는 사람들이기 십상이다.

넷째도 있다. 너무 오래 국회의원직을 한 사람도 사실 곤란하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사실 4년 임기만 해도 진이 빠질 것이다. 엄격한 기준이라면 국회의원은 연임까지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8년씩이나 같은 직을 했다면 잠시 충전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혐오 집단 국회의원'을 벗어나려면 인적 교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 국회를 들러리나 거수기나 맹탕으로 만들려는 현실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스피릿으로 국회의 권위와 책임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치열해야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현실 권력에 치열하게 맞짱 뜨는, 착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을 정말 보고 싶다.

이 칼럼을 쓰면서 '꿈도 참 야무지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야무진 꿈이 진짜 꿈 아닌가?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社 說

'빈익빈 부익부' 교부세 개정안 보완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가 늘어 복지 수요가 많아지는 대도시에 더 많은 교부세를 주고 농어촌은 줄이기로 해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이 방침이 관철되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남 등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간 35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다. 정부는 그 산정 기준 가운데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가산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23%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현상이 발생해 경기(160억 원)·부산(106억 원) 등은 지난해보다 모두 513억 원을 더 받아 가게 된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자체는 되레 대폭 삭감된다. 내년에 60억 원이 깎이는 전남을 비롯해 강원·경북 등은 정부 지원이 줄게 돼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

이처럼 농어촌 실정을 외면한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다수가 생활하는 수도권 등 도시의 복지 수요가 커진 만큼 증액은 타당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쪼들리고 주민까지 줄어 성장세를 기대하기 힘든 전남 지역 등은 타격이 클 것이다. 형편이 빠듯한 농어촌 지역은 정부 도움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꾸로 줄이겠다니 아무리 따져 봐도 사리에 어긋나 보인다.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시킬 것이 확연하다.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좋지만 농어촌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원 출범에 거는 기대와 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정부 책임 운영기관)의 위탁을 받아 문화전당을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1일 공식출범했다. 아시아문화원의 출범으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 업무를 맡았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전당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은 최근 창립이사회를 열어 10명의 이사를 위촉하고 이 가운데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1일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쳤다. 지난 7월 문화전당 조직 구성에 이어 아시아문화원까지 출범함에 따라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조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시아문화원 출범으로 지난 4일 부분 개관한 문화전당은 본격적인 콘텐츠 구축과 운용 시스템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달 공개채용으로 뽑힌 신입 직원 56명은 이번 주까지 직원 등록과 교육을 마친 후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운영 주체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전신인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직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바람에 어수선해진 조직의 분위기를 하루빨리 추슬러야 한다.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수인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명의 이사진 가운데 지역 인사가 1명(송숙남 광주대 조형디자인학부 교수)에 불과한 만큼 지역 소통을 위한 대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아시아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장을 하루빨리 선임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문광부는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을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한 전례가 있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조속히 선정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마음공부 이야기 '더 좋은 사람되기'

김 법 성
광주원음방송사장

지난달 6일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동창인 그는 동수원교당에 근무한 지 11년이 됐지만 교당은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교당 발전을 위해 비전 선포식도 하고 한푼 두푼 정재(淨財)를 모아 상가건물을 구입해 교당도 늘렸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에는 교도들과 책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를 할까 한다고 하길래 그냥 지인들에게 한 권씩 나누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기념식에 김종완 문학평론가이며 격월간 '에세이스트' 발행인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많은 책을 만들어 봤겠지만 그는 '더 좋은 사람되기' 책을 엮으면서 정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책을 내고 평론을 하는 것 등은 있는 사물을 추상화하고 형이상학화 하는데도 도사인데 원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월적 존재를 현재 지금에 끌어내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부처를 관념이나 초월적 존재로 우상화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는 엄혹한 명령을 하고 있다며 처처(곳곳이) 불상(부처) 사사(일마다) 불공을 말했습니다.

동수원교당에서는 대체로 30~40대 젊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법회를 봅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재롱을 부리는데도 아이들이 부처고 남편이 부처고 아내가 부처며 이웃이 부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인연 모두가 부처의 화신이므로 달라져야 하는 사람은 자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부처로 보지 못하는 나를 갈고 닦아 천여래 만보살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니 바로 이 마음 열림이 개벽 아닌가 눈을 뜨면 정토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이 부처를 발견하고 모셔가는 구체적 수행정진 기록인데 읽어 보면 너무 쉬워서 또한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제 방 책상이며 옷장의 배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순간 나는 유무념 조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방에 가구가 이게 머야? 왜 이렇게 어질러 놨어, 엉? ' 아들은 제 나름대로 가구 위치를 바꿔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딴에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엄마가 다짜고짜 화를 내니 아들도 화가나서 소리를 같이 질렀다. "엄마가 공부하냐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말라구!" 화가 난 아들은 밥도 안 먹고 학원에 가 버렸다.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다. 그래 맞아 나의 유무념으로 우리 아들 편이 돼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자고 정해놓고 또 실천이 안됐구나, 금세 잊어버린 것이다. 가구 배치가 좀 달라졌다고 화를 내고 말았으니 이를 어쩐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실천력 없는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아들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아들도 어느새 마음이 풀어져 있었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시 저편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에서 우린 마음공부의 기본을 봅니다. '더 좋은 사람되기' 이 책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처가 되고자 정해놓은 조목들을 실천하면 유념, 그렇지 않으면 무념으로 정해 그 사례를 아주 처절하고도 실감나게 엮은 44인의 유무념 마음공부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의 근본 마음(영성)을 보고 양심에 비추어 참되고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순간의 화남을 참고 마음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하나하나 업장을 소멸해 간다면 그것이 견성이고 성불일 것입니다.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버킷리스트 같이 실천 조목들을 만들어 하나하나 점검해 간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無 等 鼓

인면암(The Face)

사람들의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됐다. 현실화되지 않은 상상은, 그 상상을 현실화할 만큼 과학기술이나 지식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도 결국엔 상상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현실화되거나 증명된 것들이다.

대부분의 상상은 언젠가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과학이나 지식의 발전 방향이 '상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상'은 인간의 욕구이고, '과학과 지식'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이니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우주적 차원이라는 11차원에서 보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우주적 시간 속에서 상상은 현실을, 현실은 상상을 서로 비추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NASA에서 발표한 '화성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실제로는 수십 년 전부터 일단의 연구가들이 주장해 오던 내용이다. 당시엔 상상이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실로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NASA의 발표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진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들은 화성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한다는 '상상'을 내놓고 있다.

1976년 6월 미국의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는 놀라운 영상을 지구에 전송했다. 화성의 북위 41.218도 서경 9.55도 부근인 '시도니아 지구' 상공 1873㎞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인간의 얼굴'로 보이는 거대한 물체가 찍혀 있었다.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면암'(The Face)이 발견된 것이다.

NASA의 부인에도 연구가들은 "시도니아 지구에 거대한 5각 피라미드, 원뿔 구조물 '톨루스', 거대한 스핑크스, 높이 1㎞의 피라미드 등 인공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사의 전 기술고문인 리처드 호글랜드는 '시도니아는 치밀한 계획도시'라고까지 표현한다.

개천의 물이 바다로 향하듯, 화성의 실개천은 상상이 현실로 변하는 첫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적 능력을 갖춘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상상에서 현실로 바뀌는 그 순간, 인류의 가치관도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기 고

꺾일 줄 모르는 보험사기 범죄

김 양 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1년2개월 동안 보험사기를 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와 짜고 성형수술이나 단순 통원치료만 받아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실손보험으로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환자를 유치해 6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사기에 연루된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20명이고 가짜 환자로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102명이었다.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 혐의가 있는 전·현직 설계사 25명과 가짜환자 110명 등 총 135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보험사기와 연루된 범죄가 많다. 특히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보험사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보험사기도 수십 건이다. 검찰도 자료 분석 중이며, 자료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곧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등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보험범죄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범죄 대상도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보험범죄의 표적이 된다. 특히 보험전문가로 자처하는 설계사나 병원관계자가 주도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주 타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 중 자기부담금 부문과 비급여부문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의원과 한의원할 것 없이 설계사와 짜고 수십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허다하다.

보험사기 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중 지난해 말 기준 적발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6000억원이므로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의 약 11%만이 겨우 적발된 셈이다. 보험 사기혐의자도 8만5000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관련법안은 해가 두 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촌에 활력 주는 여성농업인 적극 육성해야

최근 농촌지역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농업인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농촌지역의 농업 종사자는 남성이 총 78만여 명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8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생산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대다수 여성 농업인들은 자신을 '무급 가족종사자'로 여기고 있는데다, 농사는 물론이고 가사마저 떠안고 있는 처지다.

또 인구감소에 따라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 편의·문화시설이 부족해 삶의 질이 열악하고, 고된 노동에 비해 농업소득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국내 농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확충하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농가에서는 여성을 공동 경영주체로 여겨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여성 농업인 리더를 육성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한규·농협안성교육원 교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